

불사하는 불교 신자서원 02)745-8503
 01)286-2680
 서울 상봉구 상북동
 신상선원 04)1734-2680
 무량사(전)인연사(전)신곡사 대전은산사(전)인연사(전)수정리

법어 조지 이두 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필자타령만을 하고 짐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여 나쁜 점, 잘못된 점을 참회하고 새롭게 발심하는 자세가 불자에게는 필요하지요”

“육식 하나만 잘 다스려도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지고 주위까지 환해져요. 우리는 날마다 탐진치를 뛰어 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지내온 내력은 12·13년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5월은 '청년 포교정진의 달'

“한국불교의 허리” 청년불교 활성화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열쇠이다. 최근 몇 년간 회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단체들이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한 달을 ‘청년포교정진의 달’로 선포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청년단체들이 봉축행사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자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대사회적

역에서 부산봉축연합회가 주최하는 제등행사에 ‘불자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이어 낙동강도보순례 회화식을 가져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1977년 6월 첫 창립법회 이후 4월 30일까지 2600회 법회를 봉행한 조계사청년회는 내부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 하에 한달을 ‘청년포교정진의 달’로 선포했다.

‘3천배 용맹정진’으로 스타트를 끊은 조계사청년회는 ‘2002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범불교인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아예 어찌까지 맞춰 두르고, 50만장 홍보전단지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

대불청도 각 지역별 지방단위로 지역 특색에 맞게, ‘가족과 함께 하는 제등행렬’, ‘부처님오신날 맞이 사찰 노력봉사’, ‘자비심원보살단’ 결성, 군법당 법회 봉행, 백혈병 환자 돕기 모금 활동 전개 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실현행 사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청년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 영역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봉축행사에서 청년 불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우(취재1부 기자)



목소리를 높여 그동안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의미하는 바 크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문수, 이하 대불연)가 앞장서 청년포교 새 바람을 불어넣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불청은 12일 서울 안국동 거리에서 ‘함께 만들어오 부처님 세상’이란 주제로 달마그리기 등의 문화행사를 벌인다. 또 대불청 부산지부는 12일 부산

재가불자 참선열기 뜨겁다

조계사 수행자 평소 150명이 450명 시민선방 4년동안 2배 늘어 60여곳

본지 60여 시민선방 조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참선수행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본지가 전국 60여 시민선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계사, 영남불교대학 등 시민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불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8년 30여 곳이던 재가 시민선방도 4년 동안 2배인 60여 곳으로 늘었다.

4월 21일 재가자 수행원을 개원한 조계사에는 평소 150명에 이르던 참선수행자가 450여명으로 늘어나 공간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대구 영남불교대학이 운영하는 시민선방도 60~70여명에 이르던 수행불자들이 최근 1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한번 진행했던 참선프로그램을 목, 금요일 2회로 늘렸다. 재가안거를 시행하는 시민선방에도 해제이후 계속 수행에 몰두하는

재가자들이 늘어나면서 길상사, 무봉선원, 봉은선원, 부산불교교육원, 봉선사, 보리수선원, 보현문화회관, 보광사, 전북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 등 30여곳의 선방이 새로 개원했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져 5월 조계종 원로의원 청화스님이 서울 도봉산에 공문사 시민선방을(관련기사 23면), 10일 경기도 분당에 하안선원 선방이 확대 이전 개원하는 등 시민선방은 늘고 있는 추세다.

98년 IMF사태 당시 시민선방을 찾

사람들은 늘어나는 재가불자들의 참선수행기에 부응키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조계사는 늘어나는 재가수행자들을 위해 참선 입문과정과 참선 수행과정으로 나누고, 습의지도 스님을 별도로 배치하여 이론과 습의교육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조계사 금은수 계장은 “불자들이 환희심을 내며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자율적인 방식에서 체계적인 선실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한 것 같다”며 “그동안 사찰에서 기도와 교화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참선수행에 목말랐던 불자들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7면
김원우 기자 wukim@buddhanews.com

“하나의 생명문화 건설하자”

교황청, 부처님 오신날 경축 메시지 보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월 26일 바티칸 종교간 대화를 위한 주교협의회 의장 Francis Arinze(프란시스코 아린제) 추기경으로부터 ‘2002년 부처님오신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교황청 아린제 추기경은 이 메시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불자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축일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린다”며 “인간 존재에 대한 공통된 존경 위에서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도록 힘쓰자”고 밝혔다.

아린제 추기경은 또 “젊은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는 교육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낙태, 안락사, 인간생명에 대한 유전학적 실험 등 최근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전에 올릴 첫잎 따는 스님들

사찰에서는 맑디맑은 자연의 정기가 한데 모이는 국유 무덤 만들어낸 차를 최상으로 친다. 국유가 지난 4월 24일 순천 선암사에서 새로 돌아온 아방 첫잎으로 부처님오신날 올릴 차를 만들기 위해 스님들이 첫잎을 하나 하나 따고 있다.

순천=고영배 기자



3회 등경연대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해바라기동, 활동을 선정했다.

또 단체부문 우수상에는 능인선원의 ‘보리수 일등’, 특선에는 사자암에서 출품한 ‘팍모동’, 개인부문 우수상에 ‘도자기 등’, 특선에 ‘행복의 시간’, ‘보살의 마음’이 선정됐다.

한편, 수상작은 13일부터 강남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동 전시회’에 전시되며, 단체부문 시상식은 12일 동대문운동장 연등법회에서 개최된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4~5일

학자 200명·29개 단체, 11개 분과로 나눠 발표

전국 규모 불교 학술대회로는 처음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4~5일 동국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학결집대회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학 전공자와 불교학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논문 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자리다. 석사학위를 가진 대학 강사 이상의 불교학자 200명이 신라불교, 고려불교, 불교 등 11개 분과로 나눠 발표한다. 5개 종립 학교와 14개 학회, 10개의 연구 등 29개 단체가 참여한다.

공동 주제 발표는 ‘한국 불교학의 현황과 전망’으로 정했다. 권기종 교수(동국대, 한국불교학회장)가 ‘한국 불교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이 ‘한국 불교학의 주요 불전과 교단 형성’을, 양은용 교수(원광대)가 ‘한국 불교 문화의 전통과 그 상징성’을, 혜정 정사(회당학회장, 진각대 학장)가 ‘현대사회에서 한국 불교의 역할’을 발표한다.

대회장 목장배 교수(동국대)는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학회, 연구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불교정보와 상담포럼이 4월 30일로 마감됐습니다. 전화와 우편, 연접 설문에 성취할 수 있는 전국 각지의 사찰과 단체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의 결과는 5월 중에 개별적으로 발표되고 6월에는 불교정보와 상담포럼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불교계의 정보화 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공양계

1. 불자님은 식사를 할 때 식사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①공양계를 의우며 공양의 바른 의미를 되새긴다.
 ②행동은 하지 않고 감사의 생각만 한다.
 ③간단하게 합장을 한다. ④별 생각 없이 식사 한다.
2. 불자님은 공양계 의식을 얼마나 잘 실천하십니까?
 ①매번 한다. ②가끔 생각하면 한다.
 ③주변 사람들이 하면 함께 한다. ④절에서만 한다. ⑤기타

설문 참여: 5월 2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8호 9면에 실립니다.

전국대리점 모집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내 몸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도 生光石 스스로 방사하는 生光石 에너지는 우리 몸 세포의 분자 운동 에너지와 같아서 내 몸 세포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 과로와 운동 부족 산성 식품의 섭취로 병들어 가는 현대인들 특히, 각종 성인병과 암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生光石에너지는 예방과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을 드려 자연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드릴 것입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生光石

한국 生光石 주식회사
서울시 영구 무교동 1번지 포항빌딩 12층

새로나 광업 주식회사
광안도 영월로 이항만 푸르미 12

21세기는 생명공학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은 훌륭한 선행중의 으뜸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뜻을 모아 선행의 동반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역별로 선행의 동반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문의 대표전화 : 02)752-9900

한국生光石(株)는 生光石 원석의 개발에서부터 生光石을 응용한 30여종의 상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 체제를 갖춘 건강상품관련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성장산업인 건강 산업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 生光石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